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childbirth consciousness, and prospective parents' role

Hwa-Myung Lee*, Hye Jin Park**, Hyo-Jin Park**, Eun-Ju Yoo***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Korea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Korea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Korea

***Professor, Division of Cosmetolog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birth consciousness and pre-parent role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attending B,K University located in B city and the significance level(α) 0.05, power(1- β) 0.8, effect size(f^2) was verified in ANOVA using G-POWER 3.1.9.2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score of sexual consciousness was 2.91 ± 0.43 , the marriage consciousness was 3.27 ± 0.40 , the birth consciousness was 3.32 ± 0.43 , and the pre-parent role was 3.35 ± 0.35 . Whe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birth consciousness, and pre-parent rol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xual conscious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6.910$, $p<.001$), age ($F=3.032$ $p=.030$), major ($F=5.402$, $p=.005$), and parental orientation ($F=2.801$, $p=.027$). The marriage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amily members, and the birth conscious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and family members, and the role of pre-parents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grade and family members. The role of pre-parents of colleg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and birth consciousness. Repeated studies on the role of pre-parents based on parent-child relationship are needed, and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birth consciousness, and pre-parent role.

▶ **Key words:** university student, college student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birth consciousness, parents' role

• First Author: Hwa-Myung Lee, Corresponding Author: Hye Jin Park

*Hwa-Myung Lee (leehm@eagle.kit.ac.kr), Dept. of Social Welfare,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Hye Jin Park (parkhaejin@eaeagle.kit.ac.kr),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Hyo-Jin Park (parkhj@eaeagle.kit.ac.kr),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un-Ju Yoo (yoorej@eaeagle.kit.ac.kr), Division of Cosmetolog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 Received: 2020. 07. 10, Revised: 2020. 09. 14, Accepted: 2020. 09. 14.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 결혼의식과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위치한 B,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ANOVA에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0.8, 효과의 크기(f^2)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의식은 평균 2.91 ± 0.43 점, 결혼의식은 3.27 ± 0.40 점, 출산의식은 3.32 ± 0.43 점, 예비부모역할은 3.35 ± 0.35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성의식은 성별($t=6.910, p<.001$), 연령($F=3.032, p=.030$), 전공($F=5.402, p=.005$), 부모성향($F=2.801, p=.027$)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결혼의식은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출산의식은 학년,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예비부모역할은 학년,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예비부모역할은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자녀관계를 바탕으로 한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 **주제어:** 대학생, 대학생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

I. Introduction

인간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격의 성숙에 이르게 되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부모가 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다[1].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변화되었고 결혼을 한 경우에도 출산을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지 않아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 출산이 진행되어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나타나 극 저출산 국으로 분류되고 있다[2].

결혼률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감소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되어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동반하여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3].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4].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저하 시키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하여 부모 됨의 보상 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미혼 남녀에 비해 부모 됨의 동기가 비교적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5].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하여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생산성의 개념으로 설명 하였으며[6], 성인기에 이르러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이타심과 책임감과 같은 특성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사회화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7].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 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에 쉽게 대응해 나감으로 자녀의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8].

대학생의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해 이성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결혼에 대한 욕구가 매우 구체화되는 예비 부모세대라고 할 수 있다[9].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필수적이 아닌 선택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해서는 신비롭고 소중한 경험이나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경험으로 생각하였다[10].

또한 부모 됨에 대한 동기는 높았으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경제 부담 및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문제,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 역할 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11].

특히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 및 자녀, 가족을 중시

하는 가족 가치관이 낮았고 자녀출산 의도가 낮았으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남자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12].

예비부모세대인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또는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았고, 경제력을 결혼과 출산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13].

대학생들의 결혼의식과 출산의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고 출산 자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예비부모 역할과의 관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 역할 정도를 확인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과 예비부모역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Research subject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위치한 B,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사전에 해당 대학에 연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2019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ANOVA에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0.8, 효과의 크기(f_z)를 중간크기인 0.25로 두어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크기는 20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탈락을 20%를 고려하여 240명에게 설문을 하였으며 총 232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3. Research Tool

1) sexual consciousness

성의식[14]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15]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의식에 대한 성지식 문항 10개, 성태도 문

항 23개, 성행동 문항 11개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15]의 연구에서 '성태도' Cronbach's $\alpha=.715$, '성행동' Cronbach's $\alpha=.873$, '성지식' Cronbach's $\alpha=.92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성의식이 Cronbach's $\alpha=.880$ 이었다.

2) marriage consciousness

결혼의식[16]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17]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결혼의향', '결혼가치관'의 2가지 하위요인에 관한 질문 포함된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6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694$ 이었다.

3) birth consciousness

출산의식[16]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17]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출산계획 및 양육', '자녀가치관',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저 출산 원인 및 심각성 인식도', '국가. 기업의 자녀출산지원에 관한 태도'의 5가지 하위요인에 관한 질문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4$ 이었다.

4) preparent role

예비부모역할은[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예비부모역할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의 인식수준 문항은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부모역할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18]는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0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00$ 이었다.

4. Data analysis method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 사후분석 하였다.

3)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및 예비부모역할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70.7%(164명)이었고, 남학생이 29.3%(68명)이었으며 학년별 구성은 1학년이 31.9%(74명), 2학년이 41.8%(97명) 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22.4%(52명), 4학년 3.9%(9명)순이었다. 연령별 구성은 '21세 이상 25세 이하'인 학생이 65.5%(15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70.3%(1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은 '자연과학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이 55.6%(129명)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원은 '부모님+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학생은 78.0%(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제 중 결혼한 사람의 유, 무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8.8%(206명) 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성향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4.8%(104명) 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친밀한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4.4%(104명),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9.2%(91명)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32)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68 29.3
	female	164 70.7
School year	a freshman	74 31.9
	a sophomore	97 41.8
	a junior	52 22.4
	a senior	9 3.9
Age	≤21	57 24.6
	21~25	152 65.5
	26~30	15 6.5
	≥31	8 3.4
Religion	Yes	69 29.7
	N	163 70.3
Major	engineering field	0 0.0
	field of natural science	129 55.6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4	40.5
	Arts and Physical Education	9	3.9
family member	Parents	22	9.5
	Parents + Brothers, Sisters	181	78.0
	grandparents + parents + brothers and sisters	21	9.1
	Alone	3	1.3
	other	5	2.2
marriage among brothers	Yes	26	11.2
	No	206	88.8
parental propensity	very democratic side	33	14.2
	democratic side	83	35.8
	Ordinary	104	44.8
	undemocratic side	9	3.9
	very undemocratic side	3	1.3
relationship with parents	very intimate	79	33.6
	intimate side	104	44.8
	Ordinary	45	19.3
	a bad side	5	2.2
Home Life Satisfaction degree	great satisfaction	62	26.7
	Satisfaction	91	39.2
	Ordinary	63	27.2
	Unsatisfactory	15	6.5
	very dissatisfied	1	0.4

2. The degree of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childbirth consciousness, and the role of prospective parents

대학생의 성의식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1 ± 0.43 점이었으며, 결혼의식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7 ± 0.40 점이었으며, 출산의식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2 ± 0.43 점이었으며, 예비부모역할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5 ± 0.35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egree of sexual consciousness, marriage consciousness, childbirth consciousness, and the role of prospective parents

(N=232)

Characteristic	M±SD	Min	Max
sense of sincerity	3.48 ± 0.49	2.00	4.55
sense of marriage	3.27 ± 0.40	1.00	4.75
	3.32 ± 0.43	1.00	4.70
sense of childbirth	3.35 ± 0.35	1.00	4.43

* M±SD: Mean±Standard Deviation

3. Sex, marriage, childbirth, and prospective paren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연령, 종교여부, 전공, 가족구성원, 형제결혼여부, 부모성향, 부모와의 관계, 가정생활 만족도에 따른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과 예비부모역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은 성별($t=6.910$, $p=.000$), 연령($F=3.032$, $p=.030$), 전공($F=5.402$, $p=.005$), 부모성향($F=2.801$, $p=.02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연령에서 '21-25세'라고 답한 군이 2.90 ± 0.44 ($F=3.032$, $p=.030$) 으로 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에서는 '예체능'이라고 답한 군이 3.35 ± 0.27 ($F=5.402$, $p=.005$) 으로 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성향에서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답한 군이 3.60 ± 0.72 ($F=2.801$, $p=.027$) 으로 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은 가족구성원($F=4.456$,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가족구성원에서 '혼자'라고 답한 군이 2.52 ± 1.33 ($F=4.456$, $p=.002$)으로 결혼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식은 학년($F=3.648$, $p=.013$), 가족구성원($F=2.912$, $p=.02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라고 답한 군이 3.61 ± 0.40

($F=3.648$, $p=.013$)으로 출산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구성원에서 '혼자'라고 답한 군이 2.53 ± 1.37 ($F=2.912$, $p=.022$) 으로 출산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비부모역할은 학년($F=6.385$, $p=.000$), 전공($F=3.904$, $p=.022$), 가족구성원($F=2.847$, $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학년에서 '3학년'이라고 답한 군이 3.40 ± 0.25 ($F=6.385$, $p=.000$) 으로 예비

Table 3. Sex, marriage, childbirth, and prospective paren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N=232)

Characteristic	Sortation	sense of sexuality			sense of marriage			sense of childbirth			role of prospective parents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Gender	male	3.67±0.50	4.030		3.22±0.37	-1.179		3.37±0.46	1.094		3.37±0.36	0.343	
	female	3.40±0.47	(.000)		3.29±0.41	(.240)		3.30±0.42	(.275)		3.35±0.35	(.732)	
School year	a freshman	3.28±0.47			3.18±0.50			3.20±0.48			3.21±0.40		
	a sophomore	3.54±0.52	6.890	a<d	3.30±0.33	2.060		3.36±0.41	3.648		3.43±0.33	6.385	a<c
	a junior	3.60±0.37	(.000)		3.34±0.32	(.106)		3.35±0.38	(.013)	a<d	3.40±0.25	(.000)	
	a senior	3.75±0.44			3.19±0.45			3.61±0.40			3.43±0.26		
Age	≤20 ^a	3.31±0.39			3.28±0.44			3.26±0.44			3.27±0.33		
	21-25 ^b	3.51±0.51	4.831	a<c	3.25±0.39	1.126		3.32±0.42	0.997		3.37±0.36	1.596	
	26-30 ^c	3.79±0.40	(.003)		3.43±0.33	(.339)		3.42±0.51	(.395)		3.45±0.27	(.191)	
	≥31 ^d	3.49±0.64			3.15±0.47			3.48±0.51			3.42±0.26		
Religion	Yes	3.43±0.46	-1.029		3.32±0.43	1.405		3.36±0.39	0.928		3.41±0.29	1.779	
	No	3.50±0.50	(.304)		3.24±0.38	(.161)		3.30±0.45	(.354)		3.33±0.37	(.076)	
Major	engineering field	0.00±0.00			0.00±0.00			0.00±0.00			0.00±0.00		
	field of natural science	3.54±0.49			3.30±0.33			3.33±0.39			3.40±0.3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37±0.47	5.395	c<d	3.24±0.48	1.516		3.29±0.48	0.264		3.28±0.39	3.904	b>c
	Arts and Physical Education	3.80±0.50	(.005)		3.08±0.25	(.222)		3.37±0.59	(.768)		3.36±0.32	(.022)	

family member	Parents	3.47±0.39		3.15±0.29		3.27±0.37		3.37±0.35	
	Parents + Brothers, Sisters	3.48±0.48		3.28±0.35		3.32±0.40		3.35±0.31	
	grandparents + parents + brothers and sisters	3.57±0.52	1.285 (.277)	3.31±0.39	4.456 (.002) a,b,c, e>d	3.41±0.38	2.912 (.022) a,b,c, e>d	3.45±0.31	2.847 (.025) a,b,c, e>d
	Alone other	2.89±1.43 3.40±0.47		2.52±1.33 3.63±0.92		2.53±1.37 3.39±0.94		2.75±1.53 3.47±0.35	
marriage among brothers	Yes	3.57±0.49	0.941 (.333)	3.30±0.36	0.390 (.697)	3.48±0.39	2.030 (.043)	3.39±0.30	0.618 (.537)
	No	3.47±0.49		3.26±0.41		3.30±0.44		3.35±0.36	
parental propensity	very democratic side	3.61±0.58		3.23±0.59		3.31±0.62		3.38±0.56	
	democratic side	3.45±0.45		3.27±0.30		3.37±0.37		3.38±0.31	
	Ordinary	3.42±0.49	2.533 (.041) c<b <a< d<e	3.28±0.41	0.313 (.869)	3.29±0.42	0.718 (.580)	3.32±0.30	0.359 (.838)
	undemocratic side	3.78±0.38		3.28±0.27		3.17±0.33		3.39±0.25	
	very undemocratic side	3.92±0.17		3.06±0.50		3.46±0.47		3.33±0.30	
relationship with parents	very intimate	3.45±0.49		3.31±0.38		3.34±0.43		3.35±0.34	
	intimate	3.46±0.50	0.835 (.476)	3.28±0.44	1.411 (.240)	3.33±0.44	0.512 (.674)	3.34±0.39	0.150 (.929)
	ordinary	3.55±0.45		3.21±0.34		3.25±0.45		3.38±0.25	
	badness	3.70±0.69		2.99±0.35		3.30±0.36		3.39±0.38	
	very bad	0.00±0.00		0.00±0.00		0.00±0.00		0.00±0.00	
Home Life Satisfaction degree	great satisfaction	3.49±0.54		3.28±0.38		3.36±0.45		3.34±0.36	
	Satisfaction	3.48±0.46		3.26±0.42		3.30±0.44		3.34±0.39	
	Ordinary	3.42±0.50	0.768 (.547)	3.26±0.41	0.170 (.953)	3.27±0.41	1.096 (.360)	3.37±0.32	0.193 (.942)
	Unsatisfactory	3.64±0.38		3.33±0.35		3.49±0.43		3.41±0.46	
	very dissatisfied	3.84±0.00		3.10±0.00		3.60±0.00		3.43±0.00	

부모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에서 '자연과학분야'라고 대답한 군이 3.40 ± 0.31 ($F=3.904$, $p=.022$)이 예비부모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에서 '혼자'라고 대답한 군이 2.75 ± 1.53 ($F=2.847$, $p=.025$)으로 예비부모역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The sexuality of the subject, the marriage consciousness, the childbirth consciousness, relationship between prospective parent roles of prospective parents

대학생의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결혼의식은 성의식($r=.282$, $p<.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출산의식은 성의식($r=.221$, $p=.001$)과 결혼의식($r=.449$, $p<.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예비부모역할은 성의

식($r=.453$, $p=.000$), 결혼의식($r=.453$, $p<.001$), 출산의식($r=.530$,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4. The sexuality of the subject, the marriage consciousness, the childbirth consciousness, relationship between prospective parent roles of prospective parents

(N=232)

variable	1	2	3	4
	r(p)			
1. sense of sexuality	1			
2. sense of marriage	.293 (.000)	1		
3. sense of childbirth	.449 (.000)	.163 (.013)	1	
4. role of prospective parents	.453 (.000)	.426 (.000)	.530 (.000)	1

IV. Discussion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과 예비부모역할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연구로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의식 5점 만점에 평균 3.48 ± 0.49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충청권 소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민경의 3.37 ± 0.75 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5].

20대 중반보다 초반일수록 성의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으며 연령에 따른 요인의 차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의식의 평균이 높았다. 전공은 예체능 분야에서 성의식이 높은 평균을 보였고 부모성향이 매우 비민주적일수록 성의식에 대한 평균이 높았다. 이렇듯 성의식이 개방되면서 성행동 또한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혼전 성행동은 자신의 성 태도에 따라 가장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보다 현재에 급격하게 증가한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인터넷 지식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얻고 있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대학생들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다양한 대상자의 범위와 성별을 포함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혼의식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7 ± 0.40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미혼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19]의 3.75 ± 0.85 , 대학생 1,2,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17]의 3.72 ± 0.80 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3.22 ± 0.37 , 여학생은 3.29 ± 0.41 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20]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3.38 ± 1.06 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여학생은 2.58 ± 1.09 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혼의식의 산업화와 함께 특히 여성의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예비부모 세대인 대학생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위한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출산의식의 평균점수는 3.35 ± 0.35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 1,2,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17]의 3.28 ± 0.49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와의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17]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듯 출산의식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고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인구수 감소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가의 출산 장려정책은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개인들의 출산 선호 의식과 자유로운 출산 선택 기회를 통해 장려될 수 있도록 법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예비부모역할은 5점 만점에 3.35 ± 0.35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3.37 ± 0.36 , 여학생은 3.35 ± 0.35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남,여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18]의 남자 3.45 ± 0.37 , 여자 3.46 ± 0.34 점보다는 다소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예비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이유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의식, 결혼 의식, 출산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역할 과의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의식은 성별, 연령, 전공, 부모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21], [22], [15]의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하나인 성별이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나 비교할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추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결혼의식은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19]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가족구성원이 많을 때 결혼의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산의식은 학년,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하는 것으로 [17]의 연구에서 비슷한 맥락이나 비교할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부모역할은 학년, 가족구성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18]의 연구에서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성별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적 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 예비부모 역할과의 상관관계는 성의식과 결혼의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의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대한 지식과 행동, 태도 등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과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여러 조건의 개방성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비교할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상반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비부모역할은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이 높을수록 예비부모역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의식, 결혼의식, 출산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추후 대학생들이 예비부모가 되기까지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REFERENCES

- [1] Kim Ji-hyun, Jung Ji-na, Cho Yoon-joo, and Han Jun-ah Parent education. Gyeonggi-do: Book publishing amphibious, 2013.
- [2] Wang Seok-soon : A Study on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and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Focusing on the Re-awareness of Personality as a Life-Centered Subject and a Happiness Subject., Th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Education, 28(3), 17-32, 2016.
- [3] Heo Young-lim,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iberal arts subjects for pre-parent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Liberal Education, 27(2), 45-65, 2007.
- [4] Lee Sam-sik, A study on the causes and comprehensive measures of low birthra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2005.
- [5] Lee Yoon-jung, A study on the parenthood motivation, parenthood awareness, parental role confidenc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Infant Care, 92(1), 1-18. 2015.
- [6]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50.
- [7] Johnston, C & Mash, E. J,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167-175. 1989.
- [8] Jung Ok-bun, Jung Soon-ok, Parental education. Seoul: The Bachelor of Science in Book Publishing, 2007.
- [9] Jeong Ok-bun, Lim Jung-ha, Jung Soon-hwa, Park Yeon-jung, Kim Kyung-eun, The study on the attachment to parents, motivation of parenthood, and perception of parent role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Interdevelopment, 15(4), 67-91, 2008.
- [10] Kwon Hye-jin, Kim Yoon-jung, Kwon Soo-jin, Park Sun-ah, Ahn Young-mi, Oh Geum-sook, Lee Kyung-sook, Perceptions of childbirth by university students: A Challenge: The Korean Journal of Youth, 18(1), 175-200, 2011
- [11] Mi Hyang D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Behavior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6(4), 163-178, 2011.
- [12] Lee Se-young, Hong-dal-baby, A Study on the Marriage View and the Will to Be Born in College Students, 2014.
- [13] Shin Hyo-young, Ban Eun-ryeong,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adolescents. Future Journal of Youth, 5(3), 95-113, 2008.
- [14] Seo Hye-seok, Yang Kyung-hwa,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on self-esteem, sexu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Korean Correctional Society, 46, 147-172, 2010.
- [15] Kim Min-young,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xual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sis of master's degree of Baekseok University, 2013.
- [16] Kim Hye-young and Sun Bo-young, The study focused on the marriage and marriage intention of women,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tudies, 12(2), 3-35, 2011.
- [17] Lee Bo-ram, A Study on the Marriage and Birth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Degrees a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2.
- [18] Park So-hyu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arriage on their social pre-parent roles, and thesis on their master's degree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7.
- [19] Cho Yoon-jung, A Study on the Marriage and Birth Conscious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 Master's Degree 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7.
- [20] Park Ji-kyo,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arriage and Parenthood of College Students, and a Master's Degree in Gachon University, 2018.
- [21] Lee Seung-il,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yle of college students, and thesis of master's degree of Chongshin University, 2005.
- [22] Park Sun-young,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 a Master's Degree in Dong-A University, 2002.

Authors



Hwa-Myung Lee. earned his master's degre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0 and his doctorate from Silla University in 2015.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yungnam Information University.

I am interested in women's welfare, youth welfare, and child welfare.



Hye Jin Park received the Ph.D. degree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9. I got a nursing license and midwife license. I am teaching women's health nursing major to

students in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for 3 years.



Hyo-Jin Park received the Ph.D. degree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from Inje University, Korea, in 2017. I got a nursing license and critical care apn license. I am teaching management nursing major to

students in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for 5 years.



Eun-Ju Yoo received M.D. and Ph.D. from Dongseo University, Korea, in 2010 and 2014, respectively. I am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smetolog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s a

major in hair, beauty counseling, and history of beauty culture.